



대한체육회·KOC 완전 통합

한글명칭 대한체육회, 영문 KOC로 이사회 '정관 개정안' 만장일치 승인

엘리트 스포츠의 총 본산인 대한체육회가 앞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체육기구로 국내외를 아울러 한국 스포츠를 이끌게 됐다.

대한체육회는 24일 태릉선수촌내 국제빙상 경기회관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대한올림픽위원회(KOC)의 완전 통합하는 정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지난 수년간 분리, 통합 여부를 놓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였던 체육회는 이에 따라 정부의 정관개정 승인이 떨어지는 즉시 NOC 중심의 단일체육기구로 거듭나게 됐다.

한국 체육은 1920년 조선체육회(대한체

육회의 전신)가 먼저 발족한 뒤 1948년 KOC가 출범했으나 양 기구가 수시로 반복과 갈등을 빚어 적지않은 논란이 벌어졌다.

1968년에는 정부의 주도로 KOC가 체육회의 '특별위원회'로 소속돼 현재처럼 '한자 병 두 살림'을 꾸려왔지만 최근에도 분리와 통합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체육회 대의원총회와 KOC 위원총회에서 완전 통합에 최종 합의함에 따라 불필요한 마찰을 해소해 스포츠 발전에 한층 힘을 실을 수 있게 됐다.

통합 정관의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통합체육단체 명칭을 한글로는 '대한체

육회' 영어로는 'Korean Olympic Committee', 약칭은 'KOC'로 표기하기로 했다.

또 현재 체육회 이사는 42명, KOC 상임위원은 29명 등 양기구 임원이 총 71명에 이르지만 통합 이사회는 임원 수를 16인 이상~21인 이내로 대폭 축소시켰고 감사도 3명에서 2명으로 줄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로 했다.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는 기존의 55개 가맹경기단체와 2명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선수대표 1명 등 총 58명으로 늘어났다. 당초 체육회는 16개 시, 도 체육회도 가맹단체로 등록해 투표권을 부여할 계획이었지만 시, 도 체육회가 현재처럼 지부로 남겠다는 의사를 밝혀 무산됐다.

앞으로는 대의원총회에서 회원들의 투표권도 달라진다.

현재는 경기단체별로 일괄적으로 1표씩을 부여하지만 개정 정관이 발효되면 33개 올림픽 종목은 2표, 나머지 대의원들은 1표만을 행사하게 된다.

연합뉴스



24일 오후 청주국민생활관에서 열린 2009 다이소 핸드볼슈퍼리그 여자부 백산건설과 정읍시청의 경기에서 백산건설 김경화가 슛을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직장 체육지도자 강습회'

광주시생활체육협의회(회장 김창준·이하 생체협)는 26일 오후 1시 북구청소년수련관에서 2009 직장체육지도자 강습회를 갖는다.

광주지역 300인 이상 직장·단체의 체육담당자, 초·중·고 체육교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강습회는 직장체육인에게 새로운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직장 체육 활성화를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광주체고 권삼순 금 역도선수권 75kg급 인상

광주체육고 권삼순이 제81회 전국역도선수권대회 및 제23회 전국여자역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권삼순은 24일 경기도 포천에서 열린 대회 여자부 75kg급 인상에서 80kg을 들어올려 박희진(삼일여고)·김예주(양구여고)를 제치고 우승했다.

하지만 응상에서 101kg으로 4위에 그친 권삼순은 합계에서 181kg으로 박희진(184kg)·김예주(182kg)에 이어 아쉽게 동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남부대 사격 단체 동메달

남부대가 제25회 회장기 전국사격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세나·남승아·김윤진·이수정으로 구성된 남부대사격팀은 24일 나주 종합사격장에서 열린 여자부 10m 공기소총 단체전에서 1천181점을 기록, 한국체대(1천191점)·양산대(1천184점)에 이어 아쉽게 3위에 그쳤다.

살레시오고 신동학 테니스銅

살레시오고 신동학이 제44회 전국 주니어 테니스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을 그쳤다.

신동학은 24일 전북 순창공설운동장 테니스장에서 열린 대회 남부부 준결승에서 김운탁(동래고)에 0-2(0-6, 1-6)로 패해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이날 경기에서 신동학은 잦은 실책으로 경기 주도권을 상대에 빼앗긴 채 힘없이 주저앉고 말았다.

"꼭 이기고 돌아오겠습니다"

'하계 U대회' 국가대표 선수단 결단식 김덕현 등 광주·전남 13명 선전 기대

전 세계 대학생 선수들의 축제인 제25회 베오그라드 하계유니버시아드 한국 대표단이 24일 결단식을 갖고 선전을 다짐했다.

이날 결단식에는 김양중 선수단장과 광주·전남 소속 선수 13명을 포함 총 248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태릉선수촌 펠리퍼하우스에서 열렸다.

박용성 대한올림픽위원회위원장은 결단식사를 통해 "2015년 광주 하계 U대회 유치를 확정된 상황에서 이번 대회 참가의 의미는 남다르다"라며 "좋은 성적을 거둬 국민의 사랑을 간직시켜 주고 2012년 런던올림픽 향한 교두보를 만들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대기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베이징올림픽 종합 7위, 세계 6번째인 월드컵 7회 연속 본선 진출 등 우리나라 스포츠는 세계 13위의 경제규모보다 훨씬 잘해내고 있다"라고 치하하고, "좋은 성적을 거둬 글로벌 경기체제로 힘들어하는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고 민간 외교사절의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김양중 단장은 답사를 통해 "2015년 광주 하계 U대회 개최지 선정으로 새로운 각오와 의지를 갖고 이 자리에 섰다"라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한국스포츠에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경기종목	성명	소속
육상 세단뛰기	김덕현(남)	광주시청
수영 경영	김달은(여)	비코리아
남자축구	오승훈(남)	호남대
유도 -57kg	명지혜(여)	한국체대
유도 -70kg	황예슬(여)	한국체대
태권도 플라이급	최유진(여)	조선대
태권도 페더급	정진희(여)	광산구청

경기종목	성명	소속
태권도 임원	최경필(남)	성화대
하프마라톤	김민(남)	건국대
멀리뛰기/400m	김성호(남)	한국체대
육상 20km 경보	박철성(남)	호남대 대학원
유도 100kg	김수환(남)	용인대
태권도 헤비급	허준영(남)	경희대

광주시체육회 '스포츠 기술분석 교육'

25~26일 조선대 체육대학
광주시체육회는 25일부터 이틀간 조선대 체육대학 전산실에서 스포츠기술분석 교육을 실시한다.
체육지도자·경기단체 지도자·선수 등 50

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재)체육인재육성재단의 지원을 받아 경기지도자의 스포츠기술분석 능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스포츠기술 분석 소프트웨어 활용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스포츠 기술분석이란 훈련 및 경기 영상을 바탕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도자와 선수간에 쉽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도와주고 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되는 과학적인 훈련기법이다.

시체육회는 이번 교육을 통해 체육선진국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는 선진훈련기법을 도입함으로써 광주체육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go.kr

'매직 히포' 현주엽 전격 은퇴

"美로 떠나 지도자 수업"

1990년대 한국 농구 스타였던 '매직 히포' 현주엽(34)이 정들었던 코트를 떠난다. LG는 "현주엽이 현역 선수 생활을 마감하고 지도자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 은퇴를 결정했다."

지난 5월7일 왼쪽무릎 수술을 받고 현재 재활 치료 중인 현주엽은 은퇴 후 구단 지원 아래 미국에서 지도자 연수를 받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계약 기간 1년이 남은 현주엽은 재활을 통해 2009~2010시즌 초반 팀 복귀가 가능하지만 정상이 있을 때 선수 생활을 접기로 했다.

"한국관 바클리"로 불리웠던 현주엽은 195cm의 키에 100kg이 넘는 탄탄한 체구를 앞세워 한국 농구사에 남을 파워 포워드로 활약했으며 고려대 시절부터 '오빠 부대'를 물고 다니며 코트를 호령했던 선수다.



LG는 25일 오전 11시 현주엽의 은퇴 기자회견을 연다. /연합뉴스

스폰서 동계

25일(목)
▲국제천연도선수권 남자부 대회 (13 : 35·복제)
▲프로야구 <KIA : SK>(18 : 15·SBS 스포츠), <화화 : 삼성>(18 : 30·MBCSPN), <하어로즈 : LG>(18 : 10·KBSN S-SPORTS), <롯데 : 두산>(18 : 20·Xports)

부동산경매의 성공투자는 —

한국경매 한국법률경매(주) ☎ 062) 225-1688 H.010-3565-2888

※ 위치 : 지산동 법원 버스정류장 앞 ※ 무료주차시설 원비

잠깐!! 경매입찰 대리업무는 공인중개사로서 법원매수신청 실무교육을 수료하고 법원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순회배상책임보험 1억원 가입업체) ※ 투자자실 분 및 재테크상담 대환영

지역	소재지	면적	층/총수	감평가	최저가	
서구	금호동 풍물야파르	23	18/12	9300만	6500만	
	중앙동 대주파크빌2차	46	17/8	1억8500만	1억2900만	
	차평동 금호타운	33	17/1	1억2300만	9600만	
	중앙동 새마을신시빌	33	18/4	1억4500만	1억1100만	
	차평동 금호성원	52	17/11	2억6000만	1억8200만	
	화정동 화정주공	16	5/1	6300만	4400만	
	차평동 리안1차	25	20/20	8300만	6500만	
	진월동 힐튼메리	31	15/14	8400만	5800만	
	백운동 사옥스카이	32	15/9	9000만	6900만	
	봉선동 라인	32	25/22	1억100만	7700만	
남구	봉선동 금호타운	31	20/1	9000만	6900만	
	봉선동 라인아파트	32	25/22	1억100만	7700만	
	문선동 솔리빅스캐이빈	62	20/19	2억8000만	1억9600만	
	문선동 리안광명	31	18/1	1억1000만	7700만	
	지산동 삼성아파트	32	15/11	9400만	6600만	
	지산동 삼성아파트	46	15/2	1억5000만	1억5000만	
	문선동 리안1차	50	11/3	1억4500만	1억1100만	
	북구	용봉동 대주파크빌2차	33	13/6	1억3500만	9400만
	마일동 롯데나눔채	33	14/5	1억7000만	1억1900만	
	간화동 금호아파트	31	14/4	9000만	6900만	
광산구	우산동 미라보3차	33	20/14	9000만	6900만	
	태안동 삼성아파트	32	20/9	8200만	5700만	
	우산동 현대아파트	43	15/15	1억2300만	8600만	
	문선동 현대아파트	47	18/3	1억3000만	1억3300만	
	마곡동 삼성아파트	32	20/5	8000만	5600만	
	태안동 삼성아파트	47	20/17	1억2500만	8750만	
	우산동 현대아파트	43	15/3	1억2000만	8400만	
	문선동 현대아파트	28	20/8	6300만	4400만	
	산하동 해방삼그릴라	34	15/12	1억3500만	9400만	
	말계동 현대아파트	34	15/14	1억2800만	8900만	

지역	소재지	면적	층	감평가	최저가	비고
북구	오치동(오치동성당부근)	46/58	1억3000만	7200만	2층주택	
	문동동(북성파울리스)	67/65	2억1200만	1억1900만	2층주택	
	용봉동(하이아파트 빌)	46/59	1억1400만	6400만	2층주택	
	두림동(두림초교부근)	38/51	1억	7000만	2층주택	
남구	백운동(백운초교부근)	43/40	8600만	4800만	2층주택	
	월산동(월산초교부근)	44/44	1억	6800만	2층주택	2층수리완료
광산구	백운동(수곡아아동)	38/43	9800만	5380만	2층주택	
	월산동(삼아아파트부근)	34/37	7700만	4300만	2층주택	
	오치동(오치사거리교대)	268/670	22억	11억2800만	3층(신축)	

지역	소재지	면적	층	감평가	최저가	비고
북구	주월동(백운광명도로부근)	124/294	11억3000만	7억8000만	4층빌딩	
	월산동(동산상생병원)	124/371	10억8500만	3억1000만	5층(목욕탕)	
광산구	말곡동(하이아파트내)	145/313	9억1400만	5억1200만	4층(가주용)	
	북구 오치동(오치사거리교대)	268/670	22억	11억2800만	7층(학원상가)	

지역	소재지	면적	층	감평가	최저가
서구	봉향동 문곡리	과수원	3127	2억1700만	1억5000만
	세지동 송래리	밭	168	740만	500만
	세지동 문곡리(송래마을)	논	1210	4000만	2800만
	봉향동 문곡리(누실마을)	논	363	1200만	680만
	봉향동 문곡리(마실마을)	밭	3127	2억1700만	1억5200만
	대기동(가동마을)	과수원	1946	9650만	4500만
	봉향동 신동리(두물마을)	논	907	3800만	2500만
	봉향동 송향리(산정마을)	논	615	1750만	1200만
	동북면 일영리	밭	1651	4280만	2380만
	한원면 정리(정동마을)	목장	1404	6억6200만	1억1700만
동구	도곡면 한말리(도곡운촌)	다지	1359	6억7400만	3억7700만
	남면 안말리	논	1168	3000만	2100만

중정시설

지역	소재지	면적	층	감평가	최저가
동구	금성면 봉서(금성농공)	1532/277	2층	6억7800만	3억7900만
	진성동	346/253	2층	7억4000만	4억1900만

【주]한국경매는 고객님의 재산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인기폭발 신제품!!
아내가 개발한 '큰놈'

약, 주사, 링, 펌프가 아닙니다. 아내가 개발한 발기부전을 개선하는 신제품 기구입니다. 달팽이 모양의 大, 中, 小(한 세트)로 구성되어 실용신안 특허 등록되어 노인도 사용할 수 있으며 조루나 적은 분도 사용이 편리하고 후대가 간편합니다.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가격이 저렴하고 만족도는 제일 높은 볼타는 큰놈입니다.

성인용품점 20 개 이상 사용 실용성 전격조사 및 시제품을 선구매 드립니다. (대신로에게는 판매처 없음)

저렴한 가격 **99,000원**
다이아몬드링 추가시 3만원

"꿈"을 이루는 파워마카
파워마카 100(분말) (마카원료로만 100% 함유된 제품임)

자기 몸은 자기 스스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인생에서는 재미가 없으면 삶의 질은 떨어지므로, 남성을 되찾아 기쁨을 누리는 황금기 인생으로 살아야 최고로 잘 사는 것입니다.

1개월분 90,000원 / 2개월분 150,000원

20년간 같은 장소, 같은 주소지에서 도서출판 및 획기적인 공산품 개발과 수입오토바이를 서울본사와 일본 동경지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상담 010-8558-4114/02-2672-0454
전화 010-8952-4114/02-2633-4110

서울 영등포 6가 11번지 영원 B/D 310호 글로벌테크
농협 307077-56-075392 예금주 전선영 입금 후 주소를 불러주시면 당일 발송 해드립니다.
통신판매신고증 제 19-5301호 / E-mail. yangko719@hanmail.net